中國訪問記 〈연재〉

제공 : 裵永斗

〈4〉

(91. 8. 18~91. 8. 28)

〈속〉 〈91년 8월25일 맑음

과연 延吉은 교포들의 天地였다。 우선 교포가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전통적 우리음식을 포식하고 밤9時에 延吉을 출발 白頭山(長白山)산록에 자리잡은 天池賓館(여관)까지 장장 5時間의 비포장도로 強行軍에 들어갔다。 연길의 교포음식점에는 관광온 한국사람들로 초만원상태로 붐볐다。 특히 문앞에서 아코디온을 키는 11세少女의 고향의 봄과 울밑에선 봉선화 등의 연주솜씨는 모든 관광객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우리一行은 차칸에서 잠시 합창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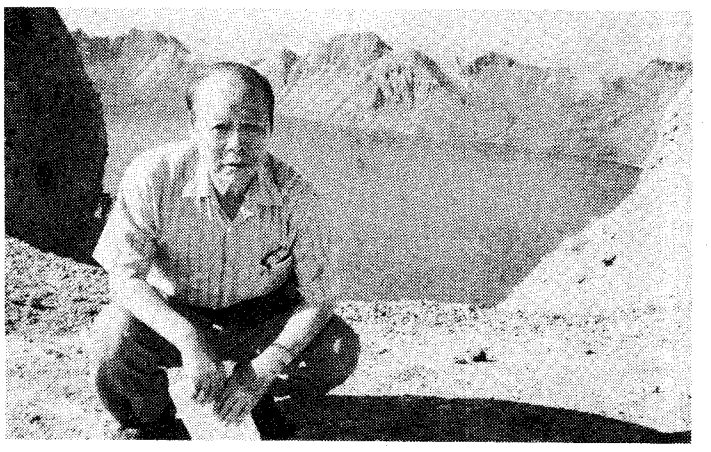
天池賓館에서 白頭山정상까지 약2時間、便道로 7時間이 소요되니 往復 14時間의 장거리行軍 가장 어려운 코스로 나이가 많은分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심양비행장에서 또는 延吉까지 와서 白頭山관광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에 열두번 변하는 기상조건 때문에 다올라가서도 또는 中間地點에서 天池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고하니、 우리는 가는 途中이나 天池빈관에서 마음속으로 내일의 날씨가 쾌청하기만을 빌었다。 5時間의 야간행군끝에 새벽2時에 天池賓館에 到着、 아침 6時까지 새우잠을 자고 6時에 기상 7時까지 등정준비를 모두 마쳤다。 지루한 5時間의 야간강행군을 調和롭게 하기 위하여 계속된 차중 노래자랑에 피곤이 겹쳤던지 天池빈관에서의 이른아침은 모두가 피곤한 氣色이였다。

延吉에서 天池빈관까지의 開發이 안된원인을 물어 보았더니 不遠間 南北통일이 되면 관광객들이 北韓땅 코스를 이용하게 되므로 이곳은 개발해 봤자 경제적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손을 쉽게 델 수가 없다고 하였다。 과연 南北통일이 쉽게 이루워질 것인지? 공상에 잠겨있는 사이 白頭山登程 關門에 도착 하였다。

長白山(白頭山)一帶를 관활하고 있는 中國軍 公安員의 檢問을 받았는데 비디오카메라의 휴대는 금지되었고 개인용 휴대카메라는 지참을 허용하였다。 좀 이상한 감이 들어서 물어 보았드니 관광객을 상대로한 비디오 셋트를 많이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장사속이 있어서 그러는것 같다고 했다。 과연 그렇게구나? 생각 하면서 일단 준비해 간 무비카메라를 關門에 맡겨놓고 그들의 지시데로 黃단장과 나、 金東均、 裵聖漢支部長은 中國軍人이 모는 찦차에、 잔여一行은 타고간 봉고車로 각각 분승하여 비교적 완경사이면서 구불구불 아득한 白頭山頂上길을 向하여 쉴새없이 달렸다。 下向길에 있는 찦차와 교차할때는 정말 아찔하였다。 오늘 先生任들은 정말 행운을 잡았다고 말하면서 이달들어 이렇게 좋은 날씨는 처음이라고 하였다。 365日中 3백日은 공치고 65日間이 겨우 登頂 가능한 날인데 3분의1은 성공하고、 3분의1은 보는둥 마는둥、 3분의1은 허탕치고 돌아가는 것이 이곳 날씨라고 유창한 한국말로 하면서 中國軍人기사는 신나게 車를 몰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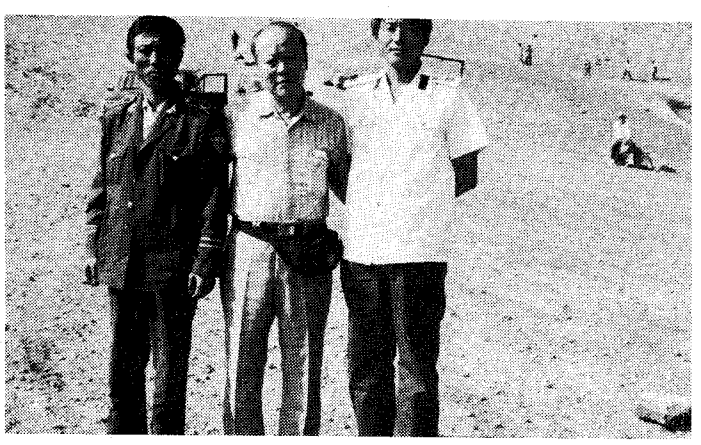
말투가 교포 2~3世 같아서 물어 보았더니 순 中國人인데 한국관광객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 선발 배치되었고 교포들이 많이 사는 연변일대이기 때문에 通話와 접촉을 수없이 하다보니 한국 말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올라가는 길 약3분의 2까지는 아름드리 古木들이 울창하게 꽉차 있었지만 그 이상은 민둥산이였다。 高山地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않는 까닭에 망망高原지대 같다。 頂上에서 바람이라도 불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날아갈만하다。 그래서 바람이 불던가、 안개가 끼던가、 구름이 몰려오면 登山을 금지시키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한다。



◇백두산정상에서 필자(91. 8. 25 9시35분)

이윽고 白頭山정상 50m아래 駐車場에 도착하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득한 迷路 저승길 같다。 벌써 숨이 가쁜상태였지만 勇氣百倍하여 頂上으로 올라갔다。 아! 白衣民族의 起源 白頭山이여! 아침 9時35分 첫발을 밟는 순간 天下절벽 아래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이는 天池를 내려다보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다。 갑작이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잠시 암벽밑에 정좌하였다가 정신이 바로 잡혔을때 올라온 一行 김동균지부장에게 부탁하여 역사적 紀念촬영을 했다。 6·25때 그렇게도 갈망하던 소망을 이루지 못했는데 오늘 이 時點에 와서 黃昏이 다되어서야 소원을 이루게 되니 너무나 가슴 벅차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世界에서 둘도없는 絶景、 장관、 기이、 大自然의 神祕 一行 모두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白頭山은 최고봉 해발 2,744m 天池의 최대수심은 373m、 평균수심은 204m、 茫茫蒼蒼的 長白山이라고 中國사람들은 부르고 있다。 白頭山의 3分의2는 北韓땅이고 3分의1은 中國땅으로 되어있다。 옛날에는 모두가 우리땅이였는데、 지금 우리는 中國에 서서 北韓땅 頂上에 있는 초소막을 아득히 바라보고만 있다。 허허실실한 감회에 젖으면서 一行들은 좌충우돌 하면서 기념촬영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나는 헌혼증이 진정되지 않아 주차장까지 내려와 어슬픈 잡초밭에 누워 해발 3천m 상공을 흐르는 무공해 산소를 마음끝 마시면서 白頭山정상을 오락가락하는 솜구름을 헤아리고 있었더니 머리가 맑아오고 氣力이 회복되어 왔다。 배성한支部長이 내려와 정서적이고 예술적인 기념촬영을 하자고해 몇장씩 서로 주고 받았다。 이 사진품이 예술적이 될것인지? 다만 최고 기념품이 될것임에는 틀림없다。 一行들이 駐車場으로 돌아올때가 되어 中國軍人이 기다리는 찦車옆으로 갔더니 군복차림의 교포한사람이 와서 先生任 북어를 드시라고 하면서 세마리를 주었다。 마침 포도주 한병을 갖고 왔기에 이 북어 세마리와 포도주를 놓고 김동균지부장 사회로 간단한 산신제를 올렸다。 어디선가 우리의 흘러간 노래소리가 들리기에 찦차안을 드려다 봤더니 카셋트에서 흘러나오기에 교포청년에게 물어보았다。 이곳에서는 80%自由이기 때문에 韓國노래를 매일 듣고 있어도 괜찮다고 하엿다。 바로 이 청년군인은 교포로서 中國軍人이였다。 참으로 오래살고 볼일이다。 6·25때 8사단 10연대에서 小銃小隊長으로 전투中 所謂 橫城地구전투에서 포위망속을 이틀동안 헤매다 中共軍에 잡혀 약 3개월동안 고생후 탈출에 成功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보니 오늘은 中國軍 병사의 案內를 받아 이곳 白頭山頂上까지 왔으니 정말 아이로니칼한 人生航路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검은 구름이 약간씩 몰려오고 있다。 오후의 기상관계를 생각하여 서둘러 집결 다시 찦차에 분승 下山길에 長白山폭포에 들러 김이 무릭무릭나는 계란이 반숙된다는 天池溫泉장(간이막사)에 黃단장과 함께 들어가 中國人들과 어울려 두번다시없을 白頭山 목욕을 했는데 계란이 반숙될 정도라하여 겁을 먹었으나 좀 과장된 선전에 불과하였다。 내려오면서 교포가 파는 火石몇개를 흥정 했더니 내 볼펜을 자기에게 줄수 없겠느냐고 사정하기에 그냥 빼주었더니、 백두산火石(물에 뜨는 돌) 七개를 선물로 주어서 頂上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오늘날 내 책장의 영원한 기념장식물이 되고 있다。 앞으로 中國延邊一帶(吉林省)을 觀光하는 사람은 주로 만념필、 볼펜、 기타 日用品 등을 선물로 준비해 갈것을 권하고 싶다。 (이곳에서는 생산이 안되므로 인기품이다) 아쉬움을 남긴채… 白頭山아 다시 맞날때까지 잘 있거라。



◇중국군운전병과 필자(멀리우측에 보이는 분이 주수득소장)

靜動部支下傘

▲協會本部

○91제3次理事會및 支部長 連席會議개최 : 協會는 지난 18日 오후3時부터 江南區 유스호스텔 會議場에서 任員및 支部長級 22名이 參席한 가운데 今年度 마지막 理事會및 支部長連席會議를 開催한바 있다。 이날 會議의 主議題는 91年末을 맞아 本會현안問題와 資金확보및 운용현황、 회비징수및 미수현황、 職員들의 當面한 生計보장문제등을 上程코 3時間동안 진지한 토의와 檢討를 계속했다。

結果 계략的인 결론을 얻은바 있다고 사료되나 92年度 23次 定期總會를 對備한 92·2·27日 理事會에서 再論 確定짓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피함이 좋겠다고 生覺하여 생략하기로 했다。(편집부)

※參席者 名單은 다음과 같다。

會長 宋景太 수석 副會長 李鍾容、 副會長 林連學·副會長 黃引九·副會長 黃朝淵、 理事 裵命哲、 朴萬鍾、 理事 南廷龍、 金東均(지부장 겸직)、 李鍾喆(지부장겸직) 文大珪(지부장겸직) 金鍾瑾(支部長겸직)、 鄭炯模、 柳進杰、 李文燮、 金昌漢、 朴載運 朴吉夫(지부장겸직) 監査 류복규、 박염임、 裵聖漢(支部長) 정삼조(부지부장)

○生藥栽培敎材 편수완료 : 今年 5月부터 준비해 오던 敎材는 一部栽培전문要員들의 수정을 거쳐 지난 12·10月 3차 교정이 완료되므로서 일부칼라사진을 제외하고는 編修가 종결된바 있음으로 來年봄파종기를 앞두고는 發行이 가능하게 될것이다。 92年初 별도 配付계획이 하달되었을 경우 必要하신 分은 申請하시기 바랍니다。(편집부)

▲산하支部 록생회 開催

○경남支部록생회 : 김창한支部長 主管으로 지난 12月5日 진주에서 月例록생회를 召集하고 기간중 支部活性化에 對한 제반문제를 相互토의하고 자체의결 또는 本部에 건의 하기로 하였다。 ※의결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삼천포시공판장장 차인원 록생회 영임결정

②전삼천포시소장 하백권 해임건의 결정(본부건의)

③사천군소장 강명기를 삼천포시 소장으로 명의변경 결정(본부건의)

④공판장장 승인사항을 지부장추천으로 제도변경건의(본부로)

⑤생약안정기금 실수요자에게 배분건의

⑥방품재배유도로 가격하락시 그 보완책 지원요망(본부로)

⑦흥일、 웅진등 약업사에서 『당제』 지원요망

⑧록생회 불참소장 해임건의시 본부에서 참작요망

⑨생산실적파악및 행정지도평가 12月末까지 실시(자체)

⑩계약재배 황기、 당귀외에 작약등도 고려요망(본부로)

⑪시호계약재배성공(남해지방)에 따라 가격상승으로 인한 국내유출방지책 강구(본부로)

⑫쿼타品目배분문제는 자체운영위에 위탁(자체)등。

○경기支部록생회 : 이웅황지부장 주최 김성배(이천군소장) 록생회 총무主管으로 지난 12月12日 서울에서 定例록생회를 召集하고 경기支部관하 당면문제등을 검토 및 토의 한바 있다。

※자체결정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가평군공판장장 김현목 : 사퇴및 행정지도위원의원면직

②도 행정지도이원으로 용인군소장 최윤식 교체위촉

③록생회 발전을 위한 모임및 유대강화로 활성화 모색

④록생회 자체기금운영및 쿼타자금확보내역에 대한 현황 발표

⑤92·1·9 자체 92총회시 자체현안문제 마무리 등

○全南支部록생회 개최 : 도관하 록생회는 현 朴商泰支部長 사퇴로 인한 현안문제를 토의결정코저 지난 20日 구례에서 定例록생회(현 會長 정일영구례군 소장 主管)를 소집코 긴급토의로 鄭炯模(中央理事、 보성군소장)氏를 만장일치 後任支部長으로 추대하고 本部에 任命上申하기로 決定하였다고 傳해왔다。

◇91년 12월18일 이사회 광경